

교회세습 제보 결과 발표 및
세습 시도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교회세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 일시: 2013년 7월 3일(수) 오전 11시
- 장소: 청어람 3실
- 주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www.seban.kr

(회원단체: 감리교 장정수호위원회, 개혁교회네트워크,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바른교회아카
데미, 성서한국, 예수살기)

순 서

사회 | 문형채 총무(바른교회아카데미)

- 11:00~11:10 인사말 | 방인성 실행위원장
- 11:10~11:20 세습 현황조사 발표 | 김애희 사무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
- 11:20~11:25 향후 활동 계획 발표 | 사회자
- 11:25 질의응답

목 차

- 취지 | 03
- 교회세습 제보 결과 및 상황보고 | 03
- 향후 활동 계획 | 16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소개 | 17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www.seban.kr

(150-034)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번지 영남빌딩 205호
e-mail. churchseban@gmail.com t. 02-2068-9489 f. 02-741-2794

■ 취지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은 지난 2013년 3월 12일부터 현재까지 한국교회의 세습실태 현황을 조사하고자 제보를 받았다. 조사를 위해 홈페이지(구글문서),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지역, 교단, 규모, 세습 유형 등으로 항목화하여 제보를 받고, 일차적으로 세습이 완료된 교회와 현재 세습으로 의혹 받고 있는 교회를 분류했다. 이중 세습으로 확인된 교회들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세습 의혹으로 제보된 교회는 공문발송, 전화연락 등을 통해 사실 확인에 주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교회는 '세습 의사 없음'을 공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다. 향후 이들 교회는 세습 근절을 위한 교회의 공적 책임을 촉구하고자 한다.

한편, 세반연은 금번 조사를 통해 세습방지법 등 교단차원의 방지대책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습을 강행하려는 개별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특별히 다수의 제보로 세습 의혹이 불거진 교회의 상황을 공론화하여, 많은 사람에게 해당교회의 세습 진행사항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

■ 교회세습 현황조사 결과

□ 개요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는 2013년 3월 12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메일 또는 전화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습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교회세습 사례를 수집하였다. 조사 내용은 교회의 일반적인 특성(소속 교단, 소속 노회(지방회), 지역, 출석교인 규모), 세습유형 등으로 구성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 양식으로 무작위로 배포하였다.

○ 수집 결과, 총 128건의 제보(중복 포함)를 접수하였고 이중 **62개 교회가 이미 세습을 진행하였고, 세습이 진행 중인 의혹이 제기된 교회가 22개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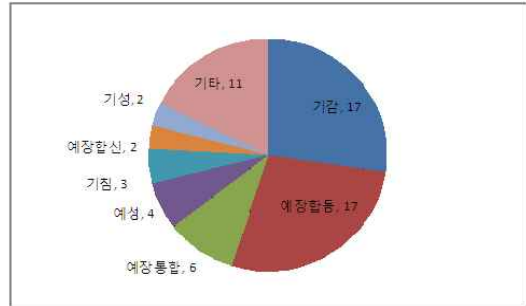
□ 주요 분석 내용

1. 세습이 확인된 교회별 분석

1) 항목별 분포(62개 교회)

①교단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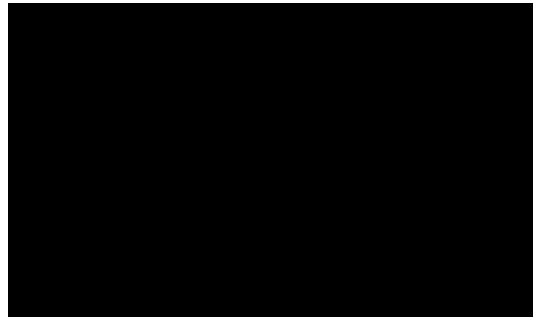
교단명	기감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성	총
교회수	17	17	6	4	
교단명	기침	예장합신	기성	기타	62
교회수	3	2	2	11	
※ 기타교단: 예장고신, 예장백석, 기장, 기하성, 선교단체 등					



○ 교단분포에 있어 예장 합동, 기감, 예장 통합 등 한국교회에서 교세가 상대적으로 큰 교단에서 세습이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단별 교세, 교회 수 등을 고려해 볼 때 교회 세습이 단순히 특정교단이나 교회의 상황만이 아님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② 규모별 분포

교인규모	50~500명	500~1,000명	총
교회수	24	13	62
교인규모	1,000~5,000명	5,000명 이상	
교회수	1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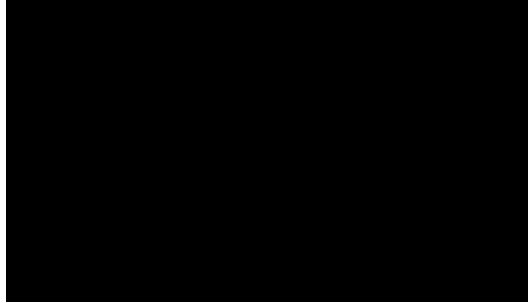


○ 초기 교회세습이 공론화되었던 시기에는 교회 세습이 대형교회에 국한하여 이뤄진다고 인식되었으나, 금번 조사를 통해 점차 교회 규모와 무관하게 저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상기 1번 문항의 분석결과와 함께 생각해 볼 때, 교세유지를 위해 '교단 일반에서, 규모와 무관하게' 세습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③ 지역별 분포

지역	서울	경인지역	기타	총
교회수	31	24	7	62

※ 기타지역: 대전/충청 5, 대구/경북 1, 부산/경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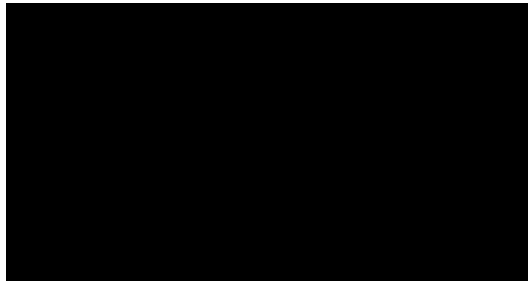


○ 이는 수도권외의 인구 및 교회 밀집도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세습반대운동이 참여 단위의 활동지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운동의 지역 확대가 아직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향후 세습반대운동의 활동 방향에 있어 중요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겠다.

④ 유형별 분포

유형별	담임목회 직계세습	기타	총
교회수	56	6	62

※ 기타유형: 지교회 세습, 징검다리 세습 등



○ 대부분 부자(父子)나 사위에게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는 사례가 많으나, 지교회를 설립하여 담임목사로 아들이나 사위를 보내는 지교회세습,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다른 목회자를 청빙했다가 직계가족에게 세습하는 징검다리세습 등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⑤ 선임목사 출신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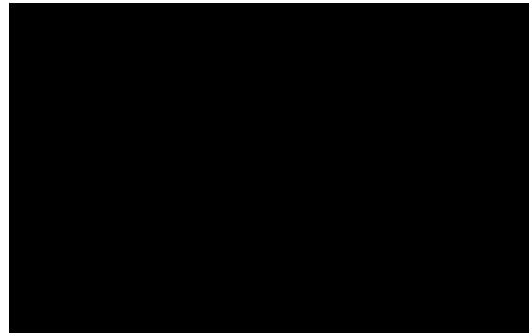
출신	한기총 회장	교단 총회장	감리교 감독	총
교회수	4	14	10	28



○ 세습을 단행한 62개 교회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28개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단 총회장, 감리교 감독, 한기총 총회장 출신이었다. 선거과정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해 온 부정과 비리로 상징되듯, 한국교회에서 이들의 위치가 가지는 절대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세습시도는 다수 교회에 큰 파급효과를 지닌다 하겠다. 앞서 살펴본 세습의 저변화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다. 한편 해당교회는 담임목사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규모가 큰 교회일 경우가 많다. 이는 세습을 단행하는 교회들이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펼치는, '세습이 안정적인 리더십 교체를 가능하게 하여, 갈등의 여지를 줄이고 성장을 지속하게 최선의 대안'이라는 논리의 이면에는 성장주의가 자리잡고 있음을 반증한다 할 수 있다.

⑥ 세습완료 연도별 분포

연도별	2000년 이전	2000~2002	2003~2004	2005~2006	총
교회수	8	6	5	6	
연도별	2007~2008	2009~2010	2011~2012	2013	62
교회수	8	6	16	6	



○ 2000년대를 기점으로, 총현교회, 광림교회 등의 교회세습 과정에서 발생한 시비와 분란으로 인해 교회세습 이슈가 대두되고, 교계 안팎에서 격렬하게 세습반대여론이 공론화되었음에도, 2013년 현재에 이르러, 광범위하게 점진적으로 세습이 확산되고 있다.

2) 세습으로 확인된 교회 명단(총 62개 교회)

순	교회명	교단	지역	규모	연도	선임목사	후임목사	유형
1	도림교회	통합	서울	500~1,000명	1973	유병관	유의웅	담임목회 직계 세습
2	부평교회	기감	경기/인천	1,000~5,000명	1980	홍창준	홍은파	담임목회 직계 세습
3	길동교회	합동	서울	500~1,000명	1986	박만식	박주완	담임목회 직계 세습
4	기동교회	기감	경기/인천	500~1,000명	1995	고용봉	고신일	담임목회 직계 세습
5	대구서문교회	예장합동	경북/대구	500~1,000명	1995	이성현	이상민	담임목회 직계 세습
6	총현교회	예장합동	서울	5,000~10,000명	1997	김창인	김성관	담임목회 직계 세습
7	주안감리교회	기감	경기/인천	1,000~5,000명	1997	한경수	한상호	담임목회 직계 세습
8	하늘비전교회	기침	서울	1,000~5,000명	1999	오관석	오영택	담임목회 직계 세습
9	베다니교회	기감	서울	1,000~5,000명	2000	곽전태	곽주환	담임목회 직계 세습
10	광림교회	기감	서울	10,000명 이상	2000	김선도	김정석	담임목회 직계 세습
11	순복음성문교회	기하성	서울	50~100명	2000	문정열	(아들, 2004년사임)	담임목회 직계 세습

12	CCC	선교단체	서울	10,000명 이상	2002	김준곤	박성민(사위)	담임목회 직계 세습
13	제천동부교회	기감	충청/대전	100~500명	2002	이용식	이현택	담임목회 직계 세습
14	잠실양문교회	예장합동	서울	100~500명	2002	서혜은	서성범	담임목회 직계 세습
15	소망교회	예장통합	경기/인천	1,000~5,000명	2003	곽선희	곽요셉	지교회 세습
16	성남대원교회	기감	경기/인천	1,000~5,000명	2003	임은택	임학순	담임목회 직계 세습
17	분당만나교회	기감	경기/인천	1,000~5,000명	2004	김우영	김병삼	담임목회 직계 세습
18	경향교회	예장고려	서울	1,000~5,000명	2004	석원태	석기현	담임목회 직계 세습
19	강남제일교회	기침	서울	100~500명	2004	지덕	지병윤	담임목회 직계 세습
20	경신교회	기감	서울	500~1,000명	2005	김용주	김일중	담임목회 직계 세습
21	대성교회	예장합동	서울	500~1,000명	2006	서기행	서성용	담임목회 직계 세습
22	동천교회	예장합동	서울	1,000~5,000명	2006	예종탁	예성철	담임목회 직계 세습
23	안양성결교회	예성	경기/인천	1,000~5,000명	2006	조병창	강대일(사위)	담임목회 직계 세습
24	성민교회	예장 합동전통	서울	100~500명	2006	허영무	허승범	담임목회 직계 세습
25	순복음수지교회	기하성	경기/인천	500~1,000명	2006	박요한	이성주(사위)	담임목회 직계 세습
26	삼락교회	예장	서울	100~500명	2007	김조	김태영	담임목회 직계 세습
27	제천영광교회	예장 합동보수	충청/대전	100~500명	2007	이준호	이태규	담임목회 직계 세습
28	중앙중앙교회	예장개혁	서울	100~500명	2007	조경대	조성환	담임목회 직계 세습
29	금란교회	기감	서울	10,000명 이상	2008	김홍도	김정민	담임목회 직계 세습
30	서울교회	기장	서울	50~100명	2008	배성산	배안용	담임목회 직계 세습
31	송의교회	기감	경기/인천	5,000~10,000명	2008	이호문	이선목	담임목회 직계 세습
32	창대교회	예장합동	서울	1,000~5,000명	2008	최성구	최용도	담임목회 직계 세습
33	계산중앙교회	기감	경기/인천	1,000~5,000명	2008	최세웅	최신성	담임목회 직계 세습
34	신광교회	기감	경기/인천	500~1,000명	2009	고창배	고인준	담임목회 직계 세습
35	포일남교회	예장합동	경기/인천	100~500명	2009	이종구	김영주(사위)	담임목회 직계 세습
36	주례중앙교회	예장고신	경남/부산	500~1,000명	2010	이종승	이영원	담임목회 직계 세습
37	시흥중앙교회	예성	서울	1,000~5,000명	2010	김재송	김성은	담임목회 직계 세습
38	대평교회	예장합동	서울	100~500명	2010	성명환	성백권	담임목회 직계 세습
39	경서교회	예장합동	경기/인천	1,000~5,000명	2010	홍재철	홍성익	담임목회 직계 세습
40	인천흰돌교회	기감	경기/인천	100~500명	2010	서명섭	서일원	담임목회 직계 세습
41	수동교회	예장통합	서울	500~1,000명	2011	정완모	정기수	징검다리 세습
42	신월동교회	예성	서울	500~1,000명	2011	고용복	고신원	담임목회 직계 세습
43	새서울교회	예장합동	서울	100~500명	2011	김복천	김성은	담임목회 직계 세습
44	대한교회	예장합동	서울	500~1,000명	2011	김삼봉	윤영민(사위)	담임목회 직계 세습
45	대서울교회	예장고신	서울	100~500명	2012	방의혁	방정기	담임목회 직계 세습
46	왕성교회	예장합동	서울	1,000~5,000명	2012	길자연	길요나	담임목회 직계 세습

47	상록교회	예장합동	서울	100~500명	2012	김동안	김은환	담임목회 직계 세습
48	원미동교회	예장통합	경기/인천	500~1,000명	2012	김영진	김승민	담임목회 직계 세습
49	연정교회	예장합동	경기/인천	500~1,000명	2012	김용실	김동원	담임목회 직계 세습
50	역곡동교회	예장합신	경기/인천	500~1,000명	2012	김정식	김병진	담임목회 직계 세습
51	부천동광교회	예장통합	경기/인천	500~1,000명	2012	류철량	류재상	담임목회 직계 세습
52	평택처음교회	예장통합	경기/인천	100~500명	2012	윤대영	윤형진	지교회 세습
53	노은대흥교회	기침	충청/대전	50~100명	2012	안종만	안정철	지교회 세습
54	인천동산교회	기감	경기/인천	1,000~5,000명	2012	이진수	조혁(사위)	담임목회 직계 세습
55	대산감리교회	기감	대전/충청	100~500명	2012	강환호	강태규	담임목회 직계 세습
56	안양광명교회	예장백석	경기/인천	100~500명	2013	김병길	김정윤	담임목회 직계 세습
57	봉신성결교회	기성	서울	100~500명	2013	김승복	김정준	담임목회 직계 세습
58	남문교회	예장합신	서울	100~500명	2013	이선웅	이건희	담임목회 직계 세습
59	성남성결교회	기성	경기/인천	100~500명	2013	이용규	이호현	담임목회 직계 세습
60	안산시민교회	예장합동	경기/인천	500~1,000명	2013	이무영	이성관	담임목회 직계 세습
61	서부교회	예성	경기/인천	500~1,000명	2011	이윤구	이성은	담임목회 직계 세습
62	천안갈릴리교회	기감	대전/충청	1,000~5,000명	2011	이창준	이동섭	담임목회 직계 세습

2. 세습의혹이 제기된 교회별 입장 확인 결과

○ 세반연은 5월 30일, 공문을 통해 세습 의혹이 제기된 **24개 교회**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담임목사 후임 청빙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세습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질의하였다. 단, 의혹이 제기된 제일성도교회는 공문발송 대상교회에서 제외하였다.

○ 세습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공문에 대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교회는 3곳이며, 교회에서 제직 중인 교역자 등 교회 직원과 전화 통화하여 입장을 확인 경우가 18개 교회에 달한다. 3개 교회는 연락이 되지 않아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1) 수신 결과에 따른 분류(단위 수)

답변유형	입장표명 거부	세습계획 없음	원칙적 입장 고수	세습 완료 확인	세습 진행 중	세습찬성 입장	세습 철회	미확인	총
교회수	7	6	2	3	1	1	1	3	24

○ 서부교회, 천안갈릴리교회는 이미 2011년에도 세습이 완료되었고, 남문교회는 최근에 세습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태평제일교회는 소속 노회에서 담임목사 청빙과 관련하여 적법성에 대한 논쟁이 야기되고 있어, 세습이 진행 중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 가나안교회, 광명중앙교회, 안산제일교회, 우이제일교회, 은성교회는 제보된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세습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 수원영원교회는 '대물림하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세습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교회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원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다. 은퇴시기가 3년이 남았고, 현재는 계획에 없으나, 추후 청빙 절차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할 것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 처음교회는 공문을 통해, 세습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아들 윤형진목사와 윤택한 목사는 Presbyterian Church USA(미국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장신대(광나루)에서 청목과정 중에 있음. 청목과정을 마치면 스스로 목회의 길을 찾아 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6월 17일 다시 공문을 보내와 '윤형진 목사는 서울장신대(경기도 광주) 청목과정 중에 있으며, 윤택한 목사는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해외한인장로회)에서 안수 받았다'는 내용을 정정했다.

○ 새중앙교회와 인천순복음교회는 '현 담임목사님은 활발한 목회활동을 하고 계시며, 정년 기한도 남아 있어, 은퇴계획이 없다. 따라서 후임자 청빙에 관한 계획도 없다. 후임자를 청빙할 경우, 교단이 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세반연이 제기한 세습 의혹에 대해 사실상의 입장 표명없이, 교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한 교회는 명성교회, 연세중앙교회, 임마누엘교회, 은혜와진리교회, 해오름교회, 신성성결교회, 인천정동교회(총 7개 교회)이다.

○ 강변교회, 송탄중앙교회, 전주아멘교회는 연락이 되지 않아,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 성남동성교회는 담임목사가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세습을 강행하려 했다가 당회 내부의 반대 노력과 세반연의 개입으로 사실상 세습이 저지된 사례이다. 예장 통합 교단법상 담임(임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가 아닌 제직회의 과반수로 청빙이 가능하다(제5장 목사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당회에서 청빙안을 부결시키지 않으면 세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회에서 청빙안을 부결시키려고 노력했다. 세반연은 담임목사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담임목사와 당회 측에 면담을 요청하였고, 6월 12일 수요예배에서 담임목사의 재임기간 중에는 세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철회 의사를 밝혔으며, 7월 2일 부목사와의 통화를 통해, '교회 내부에서 세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 세습 의혹이 있는 교회 명단(총 22개 교회)

※ 본 표에서는 세습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3개 교회(서부교회, 남문교회, 천안갈릴리교회)는 포함되지 않음

순	교회명	교단	지역	규모	담임목사	후임예정목사	유형(가능성)
1	가나안교회	예장대신	경기/인천	500~1,000명	정영식	(아들)	담임목회 직계 세습
2	광명중앙교회	기감	경기/인천	100~500명	우병설	우병삼(동생)	담임목회 직계 세습
3	명성교회	예장통합	서울	10,000명 이상	김삼환	김하나	담임목회 직계 세습
4	부천처음교회	예장통합	경기/인천	1,000~5,000명	윤대영	윤택한	담임목회 직계 세습
5	송탄중앙교회	예장합동	경기/인천	100~500명	최병남	최은성김기돈(사위)	담임목회 직계 세습
6	신성성결교회	기성	경기/인천	500~1,000명	이동원	(사위)	담임목회 직계 세습
7	안산제일교회	예장통합	경기/인천	10,000명 이상	고훈	(사위)	교차 세습
8	안양새중앙교회	예장대신	경기/인천	10,000명 이상	박중식	황덕영(사위)	담임목회 직계 세습
9	연세중앙교회	기침	서울	10,000명 이상	윤석전	윤대곤	담임목회 직계 세습
10	영원교회	예장백석	경기/인천	50~100명	김봉태	김현철	담임목회 직계 세습
11	우이제일교회	예장대신	서울	100~500명	이무웅	(아들)	담임목회 직계 세습
12	은성교회	예장통합	서울	1,000~5,000명	정봉규	정봉규	담임목회 직계 세습
13	은혜와진리교회	기하성	경기/인천	10,000명 이상	조용묵	조명제	담임목회 직계 세습
14	정동교회	예장대신	경기/인천	100~500명	김준환	(아들)	담임목회 직계 세습
15	제일성도교회	예장합동	서울	100~500명	황진수	진웅희(사위)	담임목회 직계 세습
16	태평제일교회	예장통합	경기/인천	500~1,000명	성낙운	성도경	담임목회 직계 세습
17	해오름교회	예장백석	서울	1,000~5,000명	최낙중	최진수	담임목회 직계 세습
18	인천순복음교회	기하성	경기/인천	10,000명 이상	최성규	최용호	담임목회 직계 세습
19	전주야메교회	예장합동	전라/광주	100~500명	이병선	이신사	담임목회 직계 세습
20	강변교회	예장고신	경기/인천	50~100명	조주환	(아들)	담임목회 직계 세습
21	임마누엘교회	기감	경기/인천	10,000명 이상	김국도	김정국	장감다리 세습
22	성남동성교회	예장통합	경기/인천	500~1,000	고재유	고범석	담임목회 직계 세습

3.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세습의혹제기 및 질의

세반연은 수신된 답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교계의 영향력이 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혹을 제시하고, 세습 의혹에 대한 교회 측의 공식입장과 공적 책임을 추구하고자 한다.

1) 주요 내용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은퇴 시기까지 약 2년이 남았으며, 현재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부목사로 시무 중에 있다. 김하나 목사는 교회 내에서 행정목사로 시무하고 있으며, 부목사로 청빙되었음을 동남노회 관계자를 통해 확인하였다. 명성교회가 속해있는 예장 통합의 헌법 규정상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제5장 제27조). 명성교회에서 하남지역에 지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계획 중이며, 김하나 목사가 지교회에서 사역한 뒤 세습을 강행한다는 의혹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올해 예정 통합 총회에서는 서울노회 등을 중심으로 세습방지법안이 발의하여, 교계 안팎에서 긍정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명성교회로 총회 장소가 급작스럽게 변경된 점 역시 불미스런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5년 당시, 김삼환 목사는 저서 <섬겨야 합니다>(해외편)를 통해 세습에 대해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진 대형교회가 왕실처럼 대를 이어가려는 데 문제”라고 지적하며 “자신도 내려오지 않고, 대를 이어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라고 세습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188쪽).

그러나 현재, 교회는 세습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다.

새중앙교회 박중식 담임목사의 사위 황덕영 목사는 미국에서 신학하고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2년 전부터 청년부담당 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현재 박중식 목사가 질병으로 인해, 주일예배 설교 등 목회활동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사위 황덕영 목사가 4부, 5부 주일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며, 금요성령집회 등 주요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한다. 황 목사의 목회 활동은 기독교방송에 방송되는 등 교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힘쓰고 주요 행사에 담임목사와 동석하는 등 사실상 사위 세습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중앙교회는 이에 대해 ‘현 담임목사 은퇴시기가 11년이 남아 청빙계획이 없으며, 후임청빙 시에는 교단규정에 따를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다(공문 참조). 허나 사위세습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부 의 뜻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후임 청빙을 교단 규정에 따르겠다는 답변에서 동일하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천처음교회 윤대영 담임목사의 장남 윤형진 목사는 부천처음교회에서 세운 지교회인 평택처음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차남 윤택한 목사는 부천처음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최근 주일 11시 예배에서 자주 설교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의 주요 사역을 전담하고 있다고 한다.

교회 측은 ‘세습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아들 윤형진목사와 윤택한 목사는 Presbyterian Church USA(미국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장신대(광나루)에서 청목과정 중에 있다’고 했다. ‘청목과정을 마치면 스스로 목회의 길을 찾아 갈 것이며, 교단 헌법상 “부목사는 시무교회의 당회장(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고 제직회장도 될 수 없다”며 세습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수일 후인 6월 17일에는 ‘윤형진 목사는 서울장신대(광주) 청목과정 중에 있으며, 윤택한 목사는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해외한인장로회)에서 안수 받았다’고 정정 공문을 보내왔다.

인천순복음교회 최성규 담임목사의 아들 최용호 목사는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인천순복음교회 내에 여러 목사들이 시무하고 있으나, 최용호 목사만이 부목사로 대우한다고 한다. 교회홈페이지에서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일예배에서 자주 설교자로 강단에 서고 있으며, 금요철야기도회 설교 및 주일 저녁예배 등 주요한 예배에서 설교를 맡고 있다고 한다.

교회는 세반연 측에 ‘교단법에는 담임목사 은퇴연령 기한이 없으며, 현 담임목사는 은퇴의사가 없으니 은퇴 이후 교단규정에 따라 청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중앙교회 사례와 마찬가지로, 세습 의

혹에 대한 해명없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임마누엘교회는 2012년 감리교에서 세습방지법을 결의한 이후 지난 3월 편법으로 김국도 목사가 아들 김정국 목사의 세습을 시도했다가 문제가 일자 임마누엘교회의 담임자 인사서류 반송 요청에 따라 서류상으로는 세습이 추진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김정국 목사가 담임 목사로 표기되어 있으며, 주일오후 11시 예배에 설교를 하는 등 사실상 세습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반연에서 교회의 담임목사가 누구인지를 질의하자 대답을 회피하였으며, 세습과 관련한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담임목사는 아들 윤대곤 목사는 청년부 담당목사로 시무하고 있으며, 2년 전부터 윤석전 목사가 자리를 비울 때 대예배나 새벽예배에서 설교 강단에 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교회 사무국, 목양국 등은 답변을 회피하였다.

2) 우리의 입장

- 세반연은 명성교회, 임마누엘교회, 연세중앙교회는 상기보고와 같이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바, 금번 기자회견을 통해 '**교계와 사회 앞에 조속하고 투명하게 입장을 표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의혹이 제기된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아들이나 사위 등 직계가족이 부목사나 동역목사로 시무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한국교회내에서 담임목사와 부목사간의 분명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임목사에 준하는 위상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해명을 바란다.

※ 첨부자료

1. 인천순복음교회 공문
2. 부천처음교회 공문
3. 새중앙교회 공문

발 신 : 인천순복음교회

제 목 : 공문(세반연 제2013-05-17)에 대한 답신

요청하신 답신입니다.

본 교회가 속한 교단은 담임목사의 은퇴에 관한 연령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원로목사의 자격을 규정함에 있어 65세 이상 시 자원하여 은퇴할 수 있다는 규정(헌법 제6장 제38조 1항)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에 본 교회는 현재 담임목사님께서 건강하게 활발한 목회활동을 하고 계시고 많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기에 담임목사님 은퇴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따라서 후임자 청빙에 관한 계획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은퇴계획과 청빙계획이 서게 된다면 본 교단이 정한 규정(헌법 제6장 제39조)에 따라 진행할 것임도 알려 드립니다. 끝.

인천순복음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처음교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5 / 전화 : 1588-9175, 032)230-2300 팩스 : 032)230-2309
홈페이지 : www.bjeil.org

(정정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노력하시는 목사님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현재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스스로 나가신 분들 중심으로 교회 밖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불법모임을 결성하여 교회를 훼손하고, 담임목사를 음해하며, 목회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사이비(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하여 행위 하는 것과 유사한 행동을 하며, 교우들의 신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상스러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교회를 나올 것을 종용하고, 심일조를 하지 말자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연계선에서 담임목사 청빙과 세습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된 듯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세습이나 세습시도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양하십니다.

윤택한목사는 Presbyterian Church USA(미국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장로교 교단 목회를 하기 위해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천노회의 허락을 받아 서울장로회신학대학원(광주)에서 청목과정 중에 있습니다. 청목과정이 마치면 스스로 목회의 길을 찾아 갈 것입니다.

윤형진목사는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해외한인장로회) 미국동남노회 소속으로 한국에서 장로교 교단 목회를 하기 위해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천노회의 허락을 받아 청목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목과정이 마치면 스스로 목회의 길을 찾아 갈 것입니다.

교단 헌법시행세칙 제18조에 명시하기를 “부목사는 시무교회의 당회장(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고 제직회장도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은 청빙위원회와 성도들께서 결정하실 것 입니다.

담임목사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회 통합교단의 교회로서 성서와 헌법에 입각한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또 다른 객관적인 권면이나 보다 나은 지도는 언제든지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이고 정의로운 종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6월

처음교회 담임목사 윤대영

대한이수교 장로회 시중양교회

· 항상 열려있는 교회 · 언제나 배울 수 있는 교회 · 다양한 문화가 있는 교회 ·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별촌동 158-3 / 031-420-3000 www.sja.or.kr

문서번호: 목회행정 2013 - 085

시행일자: 2013. 6. 7.

수 신: 세반연 대표
참 조: 세반연/김애희사무국장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결 재	
	시간			
처 리 부 서	번호		공 랐	
	담당자			

제 목 : 새중양교회 세습의혹 사실 확인 및 입장 표명에 대한 답변의 건

1.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귀 기관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 관련근거 : 세반연 제2013-05-07(2013.5.30.) "새중양교회 세습의혹 사실 확인 및 입장 표명 요청의 건"
3. 위 근거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4. 저희 새중양교회는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구제와 선교에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헌신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희 담임목사님께서서는 올해 59세로 은퇴하시려면 앞으로 11년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후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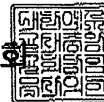
물론 현재 담임목사님께서서는 지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하셔서 목양사역을 힘들게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목회에 대한 열정은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크고 넓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온 마음으로 담임목사를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향후, 은퇴할 때가 되면 당연히 당회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후임자를 청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도 저희 새중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

2013년 6월 7일

새중양교회 당회원 일동

대한이수교 장로회 새중양교회



■ 향후 활동 계획

1. 교회세습방지법 입법을 위한 포럼

올해 교회세습방지 법안을 총회에 안건 상정한 노회의 노회원을 대상으로 세습방지법안의 효과적인 입법을 위한 포럼을 진행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7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명동 청어람 5실

2) 순서

인사말

1부 주제발제

- ㉠ 총회에 법안 헌의시 유의사항 및 절차상 보완사항 _ 조주희 목사(예장통합 평양노회 서기) 미정
- ㉡ 세습방지법안의 법적 근거 및 교단별 헌의 사항 비교 _ 이상민 변호사(기독교법률가회 사회위원장) 미정

2부 간담회

총회에 안건을 상정한 노회의 노회원을 패널로 참여하여, 각 교단별 헌의안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비교 검토하고, 발의한 계기와 진행상의 고충은 무엇이었는지 의견을 나눌 예정.

2. 개 교회 세습 대응운동 전개

- 1) 교회 세습 제보(상담)에 대한 세반연 차원의 후속활동으로 교인을 대상으로 **신학적신앙적 교육** 제공, **언론을 통한 이슈화**, 1인 시위와 같은 **비폭력 직접행동** 등을 전개한다.
- 2) 세습 의혹이 제기된 교회들을 **공론화**하여, 세습이 강행되지 않도록 해당교회 교인들에게 세습 가능성을 알리고, 반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건강한 신앙 교육 운동

1) 교회세습반대운동을 위한 소책자 제작

대중을 대상으로, 교회세습반대의 논리적 근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교회세습이 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인, 교회, 교단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명료하게 소개한다.(8월 중 발간 예정)

2) 교회세습 단행본 발간

세반연 출범이후 진행한 좌담회 및 포럼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자료 및 사례 등을 정리하여 교회세습에 관한 문제의식을 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달한다.(2014년 1월 또는 2월 중에 출간예정)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는 한국교회의 세습이 교회갱신을 위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알리며, 교단마다 세습금지를 위한 입법운동을 목표로 교회리더십 교체의 바람직한 방향제시와 건 강한 청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가 최초 제안하여 2012년 11월 2일에 출범한 연합단체입니다.

세반연은 출범이후 좌담회와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교회세습반대운동의 대중적·신학적 지평을 넓혀왔으며, 목회자와 성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세습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반연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교회세습에 대한 상담 및 대응운동 전개하며 한국교회의 공공성에 위배되는 개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반연은 주요교단 노회를 대상으로 2013년 정기노회에서 '세습방지법' 현의안이 의결되고, 총회에서 통과되도록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교회 차원의 세습방지를 통해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교회정관이 있는 개교회를 대상으로 교회정관에 세습금지 내용을 넣어 개정하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에 있으며, 교회세습과 관련된 자료를 총 정리한 단행본을 출간하여 대중에게 보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반연의 회원단체로는 감리교 장정수호위원회, 개혁교회네트워크,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바른교회아카데미, 성서한국, 예수살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성

- ① 고 문 : 김복경 목사(전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총장), 손봉호 장로(서울대 명예교수), 이만열 장로(전 국사편찬위원장), 이형기 교수(장신대 명예교수), 홍정길 원로목사(남서울은혜교회)
- ② 공동대표 : 김동호 목사(바른교회아카데미), 백종국 교수(기독교윤리실천운동), 오세택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 ③ 지도위원 : 강영안 교수(서강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이문식 목사(산울교회), 전재중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황광민 목사(석교감리교회)
- ④ 회원단체 : 감리교 장정수호위원회, 개혁교회네트워크,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바른교회아카데미, 성서한국, 예수살기
- ⑤ 실행위원장 :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
- ⑥ 사무국 : 교회개혁실천연대

회 원 단 체

감리교 장정수호위원회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산성 100-4 산성감리교회
전화 043-353-2220 이메일 jbc209@hanmail.net

개혁교회네트워크 cafe.daum.net/reformingchurch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19
전화 010-3293-3392 이메일 kairos512@naver.com

교회개혁실천연대 www.protest2002.org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전화 02-741-2793 팩스 02-741-2794 이메일 protest@protest2002.org

교회2.0목회자운동 cafe.daum.net/church2.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4-2 청진빌딩 4층 405호
전화 070-7523-1563 이메일 vmschoi@gmail.com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이메일 cemk@hanmail.net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www.nics.or.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80-2 에이원빌딩 2층
전화 070-8260-0208 팩스 02-323-0208 이메일 nics@nics.or.kr

바른교회아카데미 www.goodchurch.re.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19-8번지 청어람
전화 02-777-1333 팩스 02-319-1103 이메일 gcacademy@hanmail.net

성서한국 www.biblekorea.org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전화 02-734-0208 팩스 02-734-0209 이메일 bible-korea@hanmail.net

예수살기 www.withjesus.or.kr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75번지 2
전화 02-747-3191 팩스 02-6935-1919 이메일 jesusalgi@gmail.com